

# 경제위기 극복 이후 충남의 산업발전 전략

한무호 | 충남전략산업기획단장

## I. 서론

지난해 말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의 파산과 금융불안의 심화 → 주가 폭락과 신용경색 → 소비와 투자의 위축 → 소득과 고용의 감소 등 과정을 거치면서 상존해 있던 경제거품을 제거하고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의 실물경제의 침체로 전이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는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간의 노력과 공조로 최악의 상황을 지나 회복의 초기국면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위기상황에 이르게 했던 제반 요인들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중반의 과열성장 시기에 누적되었던 미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최근 저축성향이 늘면서 줄어들고 있지만 마이너스 성장으로 소득수준도 줄어들면서 미국 가계의 부채부담이 쉽게 줄어들고 못하고 있다. 또한 제2차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던 동유럽의 실물경기 는 여전히 부진을 지속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향후 세계 경제가 순조롭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

한편 국내경기는 지난해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과 내수지표들이 모두 빠르게 개선되고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2분기에는 전기대비 성장률이 2%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통화가치의 하락, 유가하락, 경기부양정책의 확대 등 국내외 여건이 우리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요인들의 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세계경기 상승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직 우리경제가 저점을 지나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글로벌 위기로 인해 지방경제는 지역의 경제기반과 역량의 차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경기침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경제가 대내외 여건 변화에 영향을 감소시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를 지방경제의 체질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II.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사회의 변화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는 전 세계의 경제사회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여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기존의 사고의 틀과 고정관념의 대변화를 통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 등 사회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도 영향을 미쳐 다음과 같이 한국 사회의 메가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이번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글로벌화의 역행 및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화를 가속시켰던 금융부문의 자율과 이동성이 크게 약화될 것이고, 각국의 소비와 생산이 급락하면서 교역이 감소하고, 각국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직간접적인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추세가 심화될 것이다.

둘째, 경제권력이 미국과 유럽 중심에서 중국과 인도 등 신흥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성장엔진이 수명을 다하고 기력을 잃게 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시장을 이끄는 새로운 엔진의 힘에 점차 의존하고 있어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가 중심으로 재조정되며 다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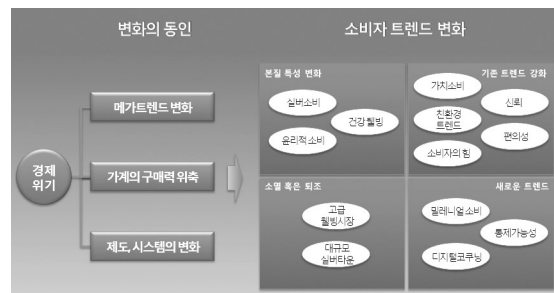
셋째, 고령화와 기후변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상하고 있다. 이번 경제위기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장기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인구 고령화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인구는 줄고 급격히 늘어나는 연금이나 의료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CO<sub>2</sub> 배출량이 급증하고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배가시키는 새로운 성장 개념인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방지할 경우 2100년까지 경제적 손실이 세계 GDP의 5~20%에 달해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성장의 부상배경으로는 미국과 개도국 등에도 CO<sub>2</sub> 감축을 강제하는 기후변화 관련 규제 논의의 본격화, 에너지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와 국제에너지가격 급등, 그리고 녹색시장의 성장세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세계 주요국들은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녹색시장을 선점하는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넷째, IT 기술의 융합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지향적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와 자원고갈로 인한 친환경기술과 IT 융합기술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될 것이며, 세계 각국은 녹색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IT인프라 구축과 친환경 기술에 막대한 정부 지원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그린 이노베이션이 IT 기술혁신과도 연계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가 창출되고 있으며, 각국은 석유고갈이 2030년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 시점에서 녹색기술, 녹색 일자리 창출에 혈안이 되고 있다.

다섯째,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는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소비자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제위기는 전 세계 경제성장의 하락과 함께 자산버블의 붕괴, 실업의 증가 등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경제사회 메가트렌드의 변화를 통해 그 하위 개념인 소비자의 트렌드를 변화시킬 것이다. 먼저 실버소비 트렌드나 웰빙 트렌드는 세부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친환경 트렌드나 신뢰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화되고, 디지털 코쿠닝 및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N세대의 부상 등이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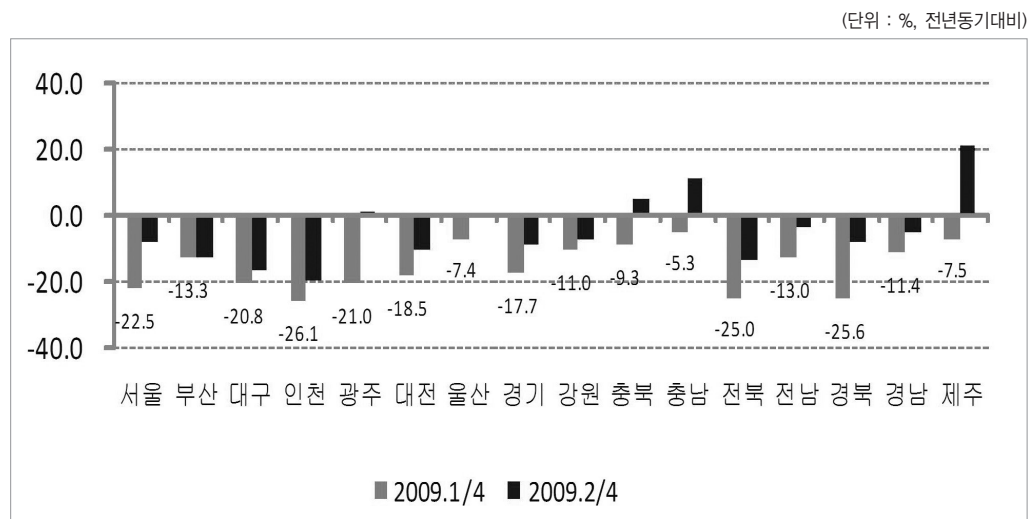
자료 : 정재영, 2009.

〈그림 1〉 경제위기와 소비자 트렌드

### Ⅲ. 글로벌 경제위기와 충남의 경제현황

#### 1. 지역내총생산

2007년 현재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55조 1,484억원으로, 전국총생산의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에 비해 전국대비 구성비가 1.1%p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지방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역의 산업생산이 30% 이상 급감하였으나 충남은 자동차, 반도체 및 IT기기, 화학분야의 수출주력산업이 집적되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산업생산지수는 2009년 1분기는 전년동기대비 -5.3% 감소하였으나 2분기는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 시도별 산업생산 증가율

## 2. 경제활동인구

충남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2008년 현재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각각 996천명과 973천명으로 2000년 대비 각각 79천명, 82천명이 증가하였다. 2008년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1.5%임에 비해 충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7%로 충남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2008년까지 3%이하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여 왔으나 지역경제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답보상태인 것은 고용 흡수력이 낮은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속히 재편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상반기 충남지역의 실업률은 3.2%로 나타나 전국(3.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6월 실업자수는 3만 6천명으로 전월에 비해 2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의 실물경기에 대한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 3. 수출입 현황

충남의 수출액은 2008년말 현재 429억 3,621만 달러로, 전국 수출액 4,220억 732만 달러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295억 5,611만 달러로 전국 수입액 4,352억 7,474만 달러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의 수출입액 중 충남지역의 수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32억 6,741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에 비해, 충남의 무역수지는 133억 8,009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는 전국의 무역수지액보다 충남의 무역수지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충남 지역 수출입액이 국가 무역수지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3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 상반기는 전년동기대비 -4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충남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수출제조기업이 주력기업으로 자리잡으면서 충남지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하여 지역경기가 국외여건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충남의 경제현황

(단위 : %)

구 분		전 국		충 남			
		2000	2008	2000	(전국대비)	2008	(전국대비)
인구 (명)		47,732,558	49,540,367	1,921,604	4.0%	2,018,537	4.1%
GRDP (십억원)	당해년가격	603,733	983,030	29,277	4.8%	55,148	5.9%
	1인당GRDP(천원)	12,843	20,287	15,579	121.3%	28,482	140.4%
사업체수(개)		3,013,417	3,189,181	119,149	4.0%	127,434	4.0%
수출입 (백만달러)	수 출 액	172,268	422,007	16,991	9.9%	42,936	10.2%
	수 입 액	160,481	435,275	9,978	6.2%	29,556	6.8%
	무역수지	11,786	-13,267	7,013	59.5%	13,380	-100.8%
경제활동인구 (천명)	15세이상인구	36,186	39,598	1,459	4.0%	1,564	3.9%
	경제활동인구	22,134	24,347	917	4.1%	996	4.1%
	취 업 자	21,156	23,577	891	4.2%	973	4.1%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GRDP 및 사업체수는 2008년 자료가 공표되지 않아 2007년 자료임.

#### 4. 산업구조

2000년 충남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산업이 4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38.2%, 농림어업 13.5%의 구성비를 점유하였으나 2007년 현재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40.7%에서 38.8%로 1.9%p 낮아진 반면, 제조업 비중은 38.2%에서 45.8%로 무려 7.6%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의 부가가치별 기준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LQ 1.0이상)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5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1.48),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1.23) 등이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 연평균 증감률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8.2%),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23.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표 2〉 충남 제조업의 비교우위산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부가가치	전국대비 비중	특화지수	부가가치	전국대비 비중	특화지수	부가가치	전국대비 비중	특화지수
식료품	1,918,291	12.85	1.56	1,931,405	12.92	1.41	2,022,360	12.50	1.34
음료	215,750	5.20	0.63	232,809	5.72	0.62	219,364	4.96	0.53
섬유제품	300,539	3.85	0.47	268,062	3.74	0.41	291,560	4.32	0.4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83,643	1.18	0.14	56,512	0.77	0.08	43,607	0.56	0.06
가죽, 가방 및 신발	12,460	0.76	0.09	15,116	0.93	0.10	19,009	1.18	0.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45,296	3.00	0.36	45,868	2.97	0.32	46,827	2.68	0.2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29,325	9.95	1.21	531,828	10.11	1.10	504,220	9.16	0.9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3,694	0.94	0.11	36,519	1.44	0.16	26,861	1.02	0.1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114,001	10.15	1.23	1,260,794	10.86	1.19	1,492,474	11.22	1.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243,028	10.41	1.26	2,608,936	13.09	1.43	2,437,349	10.80	1.1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799,841	14.49	1.76	917,561	15.40	1.68	921,315	13.81	1.4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249,859	8.39	1.02	1,217,317	8.00	0.87	1,426,040	8.88	0.95
비금속 광물제품	1,752,749	16.33	1.98	1,989,495	18.50	2.02	2,323,014	20.81	2.23
1차 금속	1,271,185	4.99	0.61	1,338,110	5.29	0.58	1,501,586	5.65	0.6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94,752	4.84	0.59	900,344	5.13	0.56	1,129,261	5.68	0.6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7,028,687	10.53	1.28	8,919,079	12.83	1.40	10,381,585	14.42	1.5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37,161	3.40	0.41	146,290	3.25	0.36	225,307	4.34	0.46
전기장비	905,711	7.06	0.86	937,030	6.82	0.74	979,867	7.18	0.77
기타 기계 및 장비	1,344,173	5.78	0.70	1,661,452	6.52	0.71	1,666,819	5.82	0.62
자동차 및 트레일러	3,296,627	10.00	1.22	4,104,091	11.17	1.22	4,455,746	11.46	1.23
기타 운송장비	27,799	0.25	0.03	44,884	0.31	0.03	38,097	0.20	0.02
가구	200,494	7.37	0.90	280,618	9.32	1.02	217,920	6.93	0.74
기타 제품	32,922	1.94	0.24	28,878	1.74	0.19	26,947	1.53	0.16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업(21.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19.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7.1%) 순으로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지역경제에 대한 여파는 인프라, 산업구조, 혁신역량 등 지역간 개발격차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외부충격에 대한 흡수력과 대응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반도체 및 IT기기, 화학분야의 수출주력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충남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 IV.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충남의 산업발전전략

### 1. 광역경제권 차원의 개방형 기술혁신체제 구축

광역경제권은 글로벌 경쟁의 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상한 지역 발전전략으로 기존의 행정구역단위의 정책을 넘어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인접 지역들을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인프라 구축, 산업지원, 지역개발 투자의 시너지효과 제고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정부의 광역 구상은 인구와 경제규모, 노동시장, 중추도시, 지역적 동질성 등과 함께 정책 추진상의 효율성을 고려해 인접 행정구역들을 5+2 광역경제권으로 편성하고,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30대 선도 프로젝트, 그리고 광역 선도산업 프로젝트로 구현 중에 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고, 추진체계 구축과 선도산업 프로젝트 협약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 광역경제권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광역경제권 사업은 지역단위 또는 부처별 정책 및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복투자 문제를 조정하고, 행정구역단위를 벗어나 각 지역의 기능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기존 시설의 재조정과 통폐합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정책은 기존의 혁신인프라와 지원프로그램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조직과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또 다른 중복투자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축적된 역량을 약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사업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폐쇄적인 기술혁신체제를 벗어나 개방형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기 구축된 혁신인프라와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을 전개하여 기존 혁신역량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주체간 개방형 네트워크의 조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전 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 사업화, 성과확산에 이르기까지 개방형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기반시설 구축 등을 연계한 통합형체제로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모여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자발적인 산학연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2. Green 기술과 IT 기술의 융합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는 전례가 없는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뒤에는 항상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 출현하면서 산업의 구조조정 기회를 제공하였다. 1930년대 대공황 뒤에는 군수산업이 1997년 IMF 이후에는 IT산업이 출현하였고, 2001년 IT 버블붕괴 후에는 금융산업이 성장동력으로 등장했다. 2008년 이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녹색성장이 그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성숙되면서 산업 및 기술간 융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의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의 융합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고 연구개발성과를 IT주도로 BT, NT, ET 기술과 융합시켜 새로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21세기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고갈되어 가는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 창출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재앙을 막아야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와 있고, 21세기의 새로운 에너지 창출을 선도하는 국가가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충남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산업인 IT 산업을 활용하여 산업의 녹색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체별로 역할분담에 의한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녹색성장전략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기업들이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3. 지역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제도 개선

지역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기관과 개별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부처가 상이하고, 재원배

분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대부분의 지역사업들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다양한 지역정책들간 연계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양한 지역의 정책들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추진되지 못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책들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책간 상호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정조직의 역할을, 지방정부는 지역정책을 통합관리기구인 지역발전협의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발전연구원 및 테크노파크와 같은 산업관련 전문기구에 지역사업들에 대한 종합평가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조직에서는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들을 심층 분석하고, 기획·운영·평가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신뢰에 바탕을 둔 산학연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전반적인 연구기획 및 평가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4. 지역의 자율성 및 기획능력 제고

우리 경제는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앙정부 모든 부문을 통제,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진입해 있고, 글로벌 경쟁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정책에 있어서도 개별 지역의 특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의 비효율성이 점차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재원을 포함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점차 이양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지역적 목적 하에서 광역시도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육성 및 소득증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기획 및 집행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기획·관리능력이 미흡하다는 것이 자율성 제고와 역할 증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지역의 내생적 발전전략을 스스로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테크노파크 및 지방발전연구원 등 지역의 전문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창출기반과 인적자원 확보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다른 분야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 V. 결 론

이번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 실물경제의 침체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경제사회적인 큰 충격을 가하면서 한국사회의 메가트렌드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기존 사고의 틀과 고정관념의 대변화를 통해 사회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격한 경제사회적인 변화 속에는 항상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한 국가나 지역은 이러한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승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패자가 될 것이다.

지역정책도 급변하는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고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성장추세, 산업구조, 혁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의 단순한 성장위주의 중앙주도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구역단위를 벗어난 광역경제권 차원의 개방형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고, Green기술과 IT기술의 융합화를 통한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사업들의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미래와 글로벌 미래 트렌드를 연구하여 지역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략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며, 지식창출 기반과 인적자원 확보에 투자를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종년 외, 「최근 위기에 빛난 기업의 교훈」, CEO Information 제717호, 삼성경제연구소, 2009.  
 박용규, 「지방 주도의 경제활성화 과제」, SERI 경제 포커스, 제246호, 삼성경제연구소, 2009.  
 배상근, 「선진경제로의 도약방안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2009.  
 이지평,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헤쳐가려면」, LGERI Report, LG경제연구소, 2009. 8.  
 이지훈 외,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CEO Information, 제675호, 삼성경제연구소, 2008.  
 임혜경·황정애, 「위기 이후 한국 사회 메가트렌드의 변화」, KARI CEO Report,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9. 11.  
 정재영, 「경제위기 이후 소비자 트렌드의 향방」,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소, 2009. 4.  
 정재영, 「혁신의 길은 하나뿐인가」,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소, 2008. 7.  
 최윤기 외, 「한국경제의 발전경로와 지역정책」, 산업연구원, 2007.  
 최홍, 「광역경제권 출범과 지역 기업의 대응과제」, SERI 경제 포커스, 제252호, 삼성경제연구소, 2009. 7.  
 한국경제연구원, 「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 구상」, 2008.  
 한국은행, 「충남지역 경제구조의 특징과 발전방향」, 지역경제 조사연구자료, 2008.  
 한국은행, 「최근의 지방경제동향」, 2009. 5.  
 황인성 외, 「6대 이슈로 본 2009년 하반기 경제」,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09. 7.  
 황인성, 「집재성장을 추이와 부진의 원인」,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2009.